

광 고

원양산업

제 1162 호
(2023년 10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제18차 협회 이사회 개최 / 4
- 제19차 협회 이사회 개최 / 5
- 2023년도 원양산업 노사 임금 협정 최종 타결 / 6
-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업종별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7
- 노조·협회, 제19회 원양축제 개최 / 8
- 한-키리바시 2024어기 참치 입어 협상 / 9
- CCSBT 18차 이행위원회 및 30차 연례회의 참석 / 10
- 2023년 협회-포클랜드대방사 간 업무협약 / 11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 '23년 9월 보고 내용 / 12

요리 만들기

- 오징어전 / 16



해외수산물정보

■ 국제유가 동향

- 10월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월 대비 하락 / 17

■ 참치어업 동향

- WCPFC “2022년 태평양서 전채 1,126건” / 18
-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1,770 달러 / 18
- 중서부태평양 8월 어획량, 7월 대비 16% 증가 / 19
- 중서부태평양 8월 전채량, 7월 대비 6% 감소 / 20
- 태평양 도서국, BBNJ 서명 / 20
- ‘22년 EPO 황다랑어 어획량, 15% 증가 / 21
- 日 냉동 눈다랑어 8월 수입가, kg당 735 엔 / 22
- 日 도요스시장 눈다랑어 8월 가격, kg당 1,013 엔 / 22
- 日, 8월 냉동참치 수입 통계 발표 / 23
-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척수, 13년 만의 최소치 / 24
- 세이셸 가다랑어 9월 가격, 톤당 1,650 유로 / 25
- EU 의회, 새 참다랑어 관리 계획 승인 / 25
- EU, 참치 통조림 수입량 약 26만톤…7% 감소 / 26
- 美 상운보관 참치 매출 증가 추세 / 27
- 중서부태평양 해수면 온도, 수년간 이상 상태 / 28
- 中 국영기업, 대서양 연승선 2척 추가 / 28
- EU, 키리바시 참치 자원에 대한 접근성 확대 / 29
- MSC, 인증 참치 어업의 FAD 사용 옹호 / 29
- Princes 그룹 매각 입찰, 8억 4,500만 달러 추정 / 30
- PNA 선망 MSC 인증 범위 확장, 공개 지연 / 30

Contents

■ 오징어어업 동향

- 페루, 2023년 상반기 냉동 오징어 수출 호황 / 31
- 중국 어민 러시아 오징어에 관심 / 31

■ 명태어업 동향

- 명태 가격, 톤당 4,000 달러 선으로 하락 / 32
- 러, 500만 톤 어획 돌입 / 33
- 러시아에서 더 많은 생선이 가공 / 33
- 연해주 어민, 명태 어획 지역 확대 / 34
- 러어민 어선에 유리한 대출 요청 / 35
- 러, 극동 명태 TAC 11% 증가 / 35
- 러, 생선 수출 우호적인 국가로 재편성 / 35
- 러, 3년간 명태 소비를 두 배로 늘리기 위해 노력 / 36
- RFC, 자국 명태 공급 증대 위한 계약 / 37
- 러, 여전히 세계 5대 어업 국가 중 하나 / 38
- 러, 생선 소비 촉진 조치 개발 예정 / 38

■ 꽁치어업 동향

- 日 9월 상순 꽁치 어획량 1,074톤 / 39
- 日 9월 중순 어획 꽁치 크기·지방 양호한 편 / 39

■ 각국 수산 동향

- EU 집행위, 강제노동 연루 제품 금지규정 제안 / 40

- 러시아 트롤 판매 증가세 / 41
- 러, 해외 수산물 공급 확대 / 41
- 러, 인도 생선 수출 연간 15만 톤으로 늘릴 계획 / 42
- 한국으로의 러시아 수산물 수입 절반으로 줄어 / 42
- 페루, 어분 생산량 76% 감소 / 43
- 러, 日 수산물 금수조치 검토 / 43

■ 쉬어가는 난 (시)

- 〈파도〉 - 유승우 / 44

■ 국내 수산 정보

- 9월 오징어 국내 동향 / 45
- 9월 명태 국내 동향 / 47
- 제30차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총회 개최 / 49
- 세계 유수 수산기업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논의 / 50
-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참석 / 51

제18차 협회 이사회 개최

임금채권보장기금 보험 전환 관련 논의 목적



우리 협회 제18차 이사회가 지난 9월 2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동원산업 민은홍 사장, 동원수산 왕인상 부사장, 사조산업 김재한 차장, 신라교역 안길환 부장, 정일산업 전선중 부사장, 아그네스 김학조 상무, 티엔에스산업 조양식 이사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윤명길 협회장, 신현애 해외협력본부장, 이형균 경영지원본부장, 이성재 부산지부장 외 5인이 참석하였다.

제18차 이사회는 지난 9월 15일 제13차 노사위원회에서 참석한 노사위원 전원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해산’ 안건으로 이사회를 소집 요청하여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이날 협회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보험 전환에 따른 법적효과 등 검토사항을 보고하였다.

이사회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보험 전환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각 회원사별 보험사의 보험요율, 보험가입액, 보험가입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문의한 후 해당 안건을 재협의기로 결의하였다.

제19차 협회 이사회 개최

보증보험에 11월 1일까지 가입기로 결의



우리 협회 제19차 이사회가 지난 10월 1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남북수산 최용태 회장, 동원산업 김병건 상무, 동원수산 김건택 상무, 사조산업 김재한 차장, 신라교역 안길환 부장, 정일산업 전선중 부사장, 아그네스 김학조 상무, 티엔에스산업 조양식 이사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윤명길 협회장, 신현에 해외협력본부장, 이형균 경영지원본부장, 이성재 부산지부장 외 5인이 참석하였다.

제19차 이사회는 제18차 이사회의 결의안(보험 가

입 관련 보험사 자문 요청)에 따라 9월 26일과 10월 5일 2회에 걸쳐 보험사 측에 자문을 구하고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고, 협회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회원사별 보험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보고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이사회는 협회에서 운용중인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을 대신하여 동 목적으로 판매중인 보증보험에 2023년 11월 1일까지 전부 가입하는 것으로 하고, 협회로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기로 결의하였다.

2023년도 원양산업 노사 임금 협정 최종 타결 월 고정급 9만 7,000원 인상, 1인 몫 월 262만 7,000원 합의



2023년도 원양산업 노사 임금 협정이 최종 타결되었다.

우리 협회(노사위원장 김호운)와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위원장 박진동)은 지난 9월 26일 노사 임금 협정 조인식을 갖고 우리 협회 소속 회원사들이 보유한 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선원들의 2023년도 임금협정서에 서명했다.

2023년도 임금협정에서 월 고정급은 직급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현행에서 월 9만 7,000원 인상하기로 했으며, 보장급은 어로계약을 종료한 자에 한하여 1.0인 몫 월 2,627,000원을 보장하고 상위 직급에 대하여 최저 인몫을 승하여(곱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통신비는 항목경비에서 제외하여 회사가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2023년도 임금협정서 시행 시기는 월고정급과 보장급의 경우 2023년 6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하되 협정일 현재 계약 종료한 선박이나 퇴직한 선원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통신비는 2024년 1월 1일 계약을 체결하는 선박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양노사는 협회 소속 회사 보유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혼승과 관련, 회사가 외국인 선원의 특별조합비에 대하여 현행에서 2,000원 인상한 1인당 월 2만원으로 하고 동 금액을 매월 조합에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현행 선박적당 3명에 대한 2배수 적용은 계속 유효하며, 해당 협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4차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 업종별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이빨고기, 크릴업계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제4차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 관련 업계 의견수렴 남빙양(이빨고기·크릴) 업계 간담회가 지난 9월 2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꽁치붕수망 업계·오징어채낚기 업계 간담회(8.31), 북양 업계(9.8) 간담회가 이전에 개최되었고, 참치 업계 간담회는 오는 10월 24일 개최될 예정이다.

8월 18일 제4차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 간담회 이후, 업종별로 세부적인 업계 현황 및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것이 해당 회의의 목적이다.

남빙양 업계 회의에는 KMI 심성현 전문연구원 외 1명, 업계 4개사 7명, 협회 이형균 경영지원본부장 외

2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모든 선사가 동참 가능한 신조 정책 및 여건 마련 요청 △ 통신장 승선(겸임) 기준 완화 등 법적 승무제도 개편 요청 △ 선원 세제 혜택 제공 요청 △ 중국 수출 지원, DCD 발급 관련 건 등 이빨고기 수출 관련 지원책 마련 요청 △ BBNJ 영향 관련 연구 △ MSC 인증 담당 전문인력 양성 △ EM(전자모니터링) 도입 관련 의견 등의 건의사항이 제시되었다.

KMI는 해당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제4차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노조·협회, 제19회 원양축제 개최

업계 관계자 및 가족, 재학생 등 1,000여 명 참석



우리 협회는 10월 14일 부산해사고에서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이하, 원양노조)과 함께 ‘노·사와 부산시민이 함께하는 제19회 원양축제’를 개최하였다. 해양수산부·부산시·선원노련·한국노총 등 노·사·정 13개 단체가 후원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원양어선원 및 가족, 원양산업업계 대표자 및 관련 종사자, 은퇴 어선원, 수산계 고교생, 부산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형균 경영지원본부장, 이성재 부산지부장, 소기동 회원지원부장 외 2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래 수산인재들의 참여가 확대

된 결과, 완도수산고·한국해양마이스터고, 충남해양과학고 재학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승선실습생 및 오션폴리텍 재학생 등이 참가하였다.

이날 행사는 원양노조 박진동 위원장과 노사위원장인 신라교역 김호은 대표의 공동 개회선언으로 개막되었다.

동원산업과 사조산업은 원양어획물 홍보 부스에서 대형 참치의 해체 라이브쇼 및 무료시식행사를 진행하였다. 참가 학생들과 오션폴리텍 재학생,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원양선사의 진로 및 취업상담 코너도 마련되었다.

한-키리바시 2024어기 참치 입어 협상

2024어기 입어 조건 합의



한국과 키리바시 간 2024어기 입어 협상이 2023년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진행되었다. 양 측은 2023 어기 및 2024어기 주요 입어조건에 합의하였다.

키리바시 측에서는 Hon. Ribanataake Tiwau 수산자원개발부 장관, Riibeta Abeta 차관, Kaon Timare 국장이 참석하였고, 한국 측에서는 동원산업

박상진 전무(참치선망어업위원장) 외 1명, 사조산업 이경영 부장 외 1명, 신라교역 김성철 차장 외 1명, 한성기업 임부관 부사장 외 1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최봉준 과장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금번 회의에서 상호간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우리 측의 헌신과 노력을 확인하였으며,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CCSBT 18차 이행위원회 및 30차 연례회의 참석 '24-'26 CCSBT TAC 및 국별 쿼터 등 협의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제18차 이행위원회 및 제30차 연례회의가 2023년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었다(이행위 10.5~7, 연례회의 10.9~12).

총 참석자는 약 100명이며, 우리 측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심수빈 사무관, 원양산업과, 조업감시센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외어업협력센터, 동원산업, 동원수산, 사조산업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최봉준 과장이 참석하

였다.

이번 이행위원회 및 연례회의에서는 '24-'26 CCSBT TAC 및 국별 쿼터가 결정되었고, 국별 미이행 사항 평가 등이 논의되었다.

'24-'26 남방참다랑어 TAC는 총 2만 647톤으로, 약 3,000톤 확대되었다('21-'23 TAC 총 1만 7,647톤). '24-'26년 3년간 우리나라 쿼터는 약 1,468톤으로 책정되었다.

2023년 협회-포클랜드대방사 간 업무협의 ITQ 도입에 따른 진행사항 등 협의



우리 협회와 포클랜드 대방사인 드래곤사(社) 간 업무협의회가 10월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드래곤사 측에서는 웬디 설본 대표, 리암 설본 부대표, 쉐나 로스 부장이 참석하였고, 협회에서는 신현애 해외협력본부장, 진호정 부장, 최상진 주임, 이승환 사원, 송덕현 국장, 차승길 소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협회는 드래곤사와 Illex ITQ 도입 관련 진행사항 및 ITQ B 도입시 현지 기여도, 합작회사(JV) 설립 관련 건, ITQ 도입 관련 경제타당성 분석 연구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현지 합작 공동대리점 설립 및 운영 추진에 관해서도 협의하였다.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9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관
나. 참치가격 동향

가. 유류가격 동향(조사일 9.26)

공급	가격	유종
다카르	801유로	경유

어종	규격	가격(\$/톤)
가다랑어	3.4kg~	1,700
	1.8~3.4kg	1,650
	1.5~1.8kg	1,500
황다랑어	10kg~	1,850
	3.4~10kg	1,750
	1.8~3.4kg	1,650
눈다랑어	10kg~	1,500
	3.4~10kg	1,500
	1.8~3.4kg	1,500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관

가. 피지 경제 동향

- 7월 누적 관광객 입국이 51만 1,335명으로 전년대비 79.9% 높았다.
- 산업별 실적은 약세로 사탕수수

(-15.4%), 설탕(-24.0%) 등 기후 여건과 추수 노력이 여의치 않아 감소하였다.

- 1~7월 국내 인플레이션은 1.3%로 식품 가격이 주된 물가 인상의 요인이었으며, 8월부터 바뀐 세제와 글로벌 식량 및 원유가격 상승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날개다랑어	10kg 상	2,900	로인가공용(PAFCO)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톤)	유종	조사일
TOTAL	1,025	MGO	'23.10.10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관

가. 중부 태평양 보호구역 논의

-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중부태평양 77만 평방마일에 보호구역 설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나.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조사일
Clipper Oil	\$3.60(gallon)	'23.10.6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황다랑어	라운드	2,000	
눈다랑어	라운드	1,800	
가다랑어	라운드	1,800	

다. 어류가격 동향

어종	규격	단가(\$/톤)	비고
Hake	2L	3,050	-
	L	2,950	
	M	2,650	
	S	2,450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2023/24 어기 시작

- 10월 1일부터 새로운 어기가 시작되었다. 10월부터 12월 사이는 통상 오징어가 많이 나지 않는 기간으로 선박들은 연간수리에 들어갔다.
- 22/23 시즌은 오징어의 조업이 상당히 저조하여 한국선박들이 어려움이 큰 해였다. 다만, 오징어 가격이 양호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나. 뉴질랜드 수산업계 M&A

- SEALORD社가 INDEPENDENT FISHERIES社를 인수합병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뉴질랜드 수산업계 역사상 가장 큰 인수합병이며, SEALORD社를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수산회사로 탈바꿈하는 거래다.

나.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톤)	유종	조사일
Z	1,253	MGO	'23.9.27

이상우 아르헨티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상우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중국 등 불법 조업선 문제

- 페루 및 아르헨티나 200마일 내에서 영구조업하고 있는 12척의 중국 선박이 수시로 해양 주권 침해를 동반한 무통제 어업을 하고 있다.
- 올해 75척의 외국 선박(대부분 중국 국적)이 위성 장치 없이 페루 항구에 정박해 있으며, 6.1일부터 8.18일까지 페루 법률을 위반하고 페루 입항한 중국 선박은 56척에 이른다.

나. 엘니뇨로 인한 피해 심각

- 아르헨티나는 3년 동안 지속된 라니냐에 이어 엘니뇨로 대규모 폭풍 해일과 심각한 해안 침식을 정부는 경고하고 있다.
- 2024년 3월까지 엘니뇨가 지속될 확률은 95% 이상, 강력한 강도로 나타날 가능성은 71%로 예상된다.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L)	유종	조사일
Epsol YPF	1.480	MGO	'23.10.8



이재원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



이재원
명예해양수산물

가. 바닷모래 채취 및 수출 관련

- 21년 동안 금지되었던 바닷모래 수출을 재개하였으나 생태계, 생물다양성, 특히 어민과 해안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있어 정부의 일관성과 협력이 필요하다.

나. 랍스터 치어 수출 관련

- 투명 바닷가재 종자 부족의 원인으로 2016년 수출을 금지하였다가 정부 재정 수입 증가를 위해 국민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종자 수출을 2020년부터 허용하였으나, 해양수산부장관의 랍스터 수출 허가 뇌물수수 사건으로 2020년 11월 26일 다시 수출이 폐쇄되었다.

다. 외국인 투자 정책 반복 변경

- 1968~79년 만다해 협정을 통해 외국 선박에 대한 허가를 개방하였고 일본 어선의 말루쿠 만다해에서 참치 조업선 입어를 부여하였으나, 인도네시아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1980년 협정이 종료되었다.
- 이후 제한된 자본과 기술의 이유로 1985~90년간 외국 국적 어선의 조업을 허용한 후 1990~99년간 외국 어선 용선 허가로 변경, 다시 2003~06년간 외국어선의 조업을 개방하였다.
- 2006~13년간 다시 외국 국적 어선에 대한 조업권을 폐쇄하고 외국인자본투자회사(PMA)의 방법으로 규정을 변경하여 조업권을 개방하였다.
- 2014년 외국어선 조업을 금지하고, 어업 분야 자본투자도 폐쇄하였으나, 2023년 PMA 방법으로 외국 투자 허가가 재개될 예정이다.

라. 말레이시아 간 해양 경계성 확정에 합의

- 18년간 협상 끝에 남부 말라카해협과 술라웨시해의 양국 간 해상 경계선 확정에 합의하였다.
- 말레이시아 간 국민감정이 한-일감정 못지않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으나, 2024년 6월까지 육상 경계선 문제도 확정키로 하였다.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

가. 기니만 해적 감소

- 가나 외교부 차관은 지난 3년간 기니만에서 해적 공격이 2020년 68건에서 2021년 18건, 2022년 15건 그리고 2023년 1분기 5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해양 국가 간의 강력한 협력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나. 정부의 카누 어업 개혁안 환영

- 카누 선단의 남획과 치어 불법어획에 따라 어업이 붕괴하고 국가 안보에도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선 규모를 줄이려는 정부 계획을 어민들은 지지하고 있다.

다. 1인당 수산물소비량

- 가나의 1인당 수산물소비량은 서아프리카의 평균 15kg을 훨씬 초과하여 26kg이다.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kl)	유종	조사일
양상급유	1,130달러	MGO	'23.9.30



마.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2,150
	~10kg	1,720
가다랑어	3.4kg~	1,700
	1.8kg~	1,650
	~1.8kg	1,500
	~1.5kg	1,350

라. 어류가격 동향

어종	규격	단가(\$/톤)	비고
호키	2L	3,050	
	L	2,950	
	M	2,650	
	S	2,450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2023/24 어기 개시

- 10월 1일부터 새로운 어기가 개시되었다. 통상 10월부터 12월까지는 오징어가 많이 나지 않는 기간으로 선박들은 연간수리에 들어갔다.
- 22/23 어기의 오징어 조업은 상당히 저조하여 한국선박의 어려움이 큰 시기였으나 다행히 오징어 가격이 양호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나. 수산업계 역사상 가장 큰 합병인수

- SEALORD社가 INDEPENDENT FISHERIES社를 합병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뉴질랜드 수산업계 역사상 가장 큰 인수 합병이며, SEALORD社를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수산회사로 탈바꿈하는 거래다.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톤)	유종	조사일
Z	1,253	MGO	'23.9.27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관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2023년 수산업 현황

- 2023년에 발생한 엘니뇨로 인하여 비교적 동쪽에 위치한 PNG는 ① 어획물의 감소(새우 및 기타 잡어) ② 참치 어장의 이동 ③ 유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 ④ 코로나의 종식을 알렸지만, 국제 시장 및 혼란의 지속 ⑤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혼란 ⑥ 미·중 간의 갈등 지속으로 인한 대중 무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2023년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PNG 자체적인 방법으로는 2차 LNG의 2024년 말 개시를 기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인다.
- 수산청은 자체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번 보고서에 올린 대로 외국 연승선에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등의 사업을 벌였으나, 엘니뇨로 인하여 모든 노력이 좋은 결실로 나타나기엔 역부족이다.

〈 게재 순서: 명예해양수산물관 성명 가나다순 〉



오징어전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 오징어 2마리, 쪽파 1줌, 당근 1/4개, 양파 1/2개, 홍고추 1/2개, 계란 1/2, 참기름 2T, 부침가루 1/2컵, 차가운 물 3T, 참기름 2T, 물 후추, 소금 약간, 물 3T+

<간장양념 재료>

양파 1/2개, 청양고추 1개, 홍고추 1개,
간장 3T, 설탕 2T, 식초 3T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오징어를 손질 후 잘게 다진다.
- ② 쪽파, 당근, 양파, 홍고추를 다지고, 양파는 깍둑썰고, 청고추, 홍고추는 어슷 썬다.
- ③ 부침가루, 소금, 후추, 다진 오징어, 다진 야채, 계란을 넣고 섞은 후 차가운 물을 넣어 걸쭉한 농도를 맞춘다.
- ④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군 후 반죽을 넣어 오징어전을 부쳐 완성한다.



10월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월 대비 하락

10월 13일 기준 890 달러...중동 분쟁 고유가 촉발 우려

10월 13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90.12 달러, WTI 가격은 86.66 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90.89 달러를 기록하였다.

10월 13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벙커 가격은 톤당 890달러로 9월 13일(945 달러) 대비 5% 하락하였다.

10월 평균(10.1~10.13) 가격은 896 달러로 전월 평균(9.1~29) 948 달러 대비 약 6% 하락하였다. 전년 9월(9.1~29) 평균과 비교해서는 14% 하락했고, 전전년 9월과 비교해서는 27%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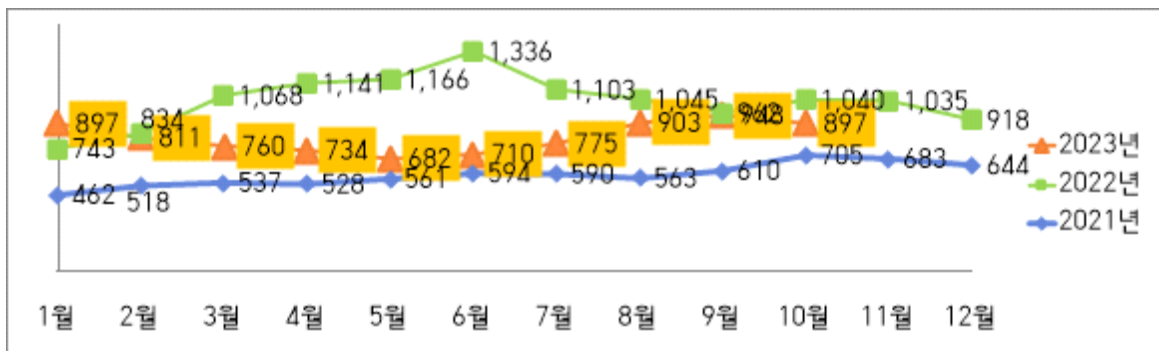
2023년 평균(1.1~10.13) 가격은 794 달러로 전년(1.1~12.31) 평균 대비 23% 하락하였고, 전전년 평

균 대비 65%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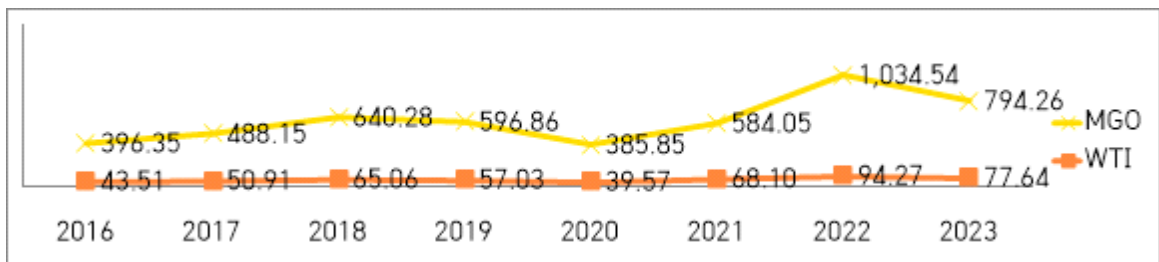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중동 분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가 하락하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또한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란이 이슬람 국가에 이스라엘 석유 수출 중단을 촉구하면서 유가는 다시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 이상으로 감소하였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다시 배럴당 100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월평균 싱가포르 벙커 가격 〉



〈 연평균 MGO 벙커, Brent, WTI 가격 〉





WCPFC “2022년 태평양서 전재 1,126건”

대만 선단, 날개다랑어 공해서 주로 전재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 따르면 2022년 태평양에서 1,126건의 공해 전재가 발생하였고, 85%가 연승선과 관련되었으며 10%가 운반선, 3%가 채낚기선과 관련되었다. 전재된 어획물의 대부분은 눈다랑어, 날개다랑어, 황다랑어로 구성되었다. 대만 국적선은 주로 날개다랑어를 전재하였다.

전재의 위치와 종에 대한 정보는 지난 6년간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공해, 키리바시, 마셜제도, 투발루와 같은 중부태평양과 동부태평양에서 전재가 더욱 집중되고 있다.

수년에 걸쳐 중국 선박에서 잡힌 날개다랑어의 약 절반이 중국 운반선으로 전재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파나마 선박으로 전재되었다. 눈다랑어를 전제한 어선은 중국, 한국, 대만, 파나마 국적이었다. 한국 선박

은 주로 눈다랑어와 황다랑어를 다른 한국 선박으로 전재하였고, 파나마 선박에 전재된 비율은 그보다 적었다.

대만 선단은 자국 국적 운반선에 거의 독점적으로 어획물을 전재하지만, 타국 운반선에도 다수 전재한다. 이들의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전재량은 지난 수년간 최다 수준이었다.

WCPFC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전재 허가를 받은 선박의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전재 허가를 받은 선박의 비율은 전체의 65%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다만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훨씬 많은 1,550척의 선박이 전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Atuna, 2023년 9월 25일자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1,770 달러

2주 전 대비 약 6% 하락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방콕 가다랑어 거래 가격은 톤당 1,770 달러로, 2주 전 가격인 톤당 1,875 달러 대비 약 6% 하락하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가공업자와 중개업자 간의 10~11월 양륙분에 대한 협상은 톤당 1,700~1,750 달러 선에서 진행 중이다.

정확한 숫자는 선사로부터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일 어획량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일일 어획량은 대부분 15~17톤 수준이었으나,

8월 들어 일일 21톤으로 개선되었다. 스쿨 조업으로 대형 황다랑어를 어획하는 선망선단의 일일 어획량은 6.4톤으로 많은 수준이었으나, 지난 몇 주 동안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가공업체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가다랑어 어획물의 어체는 예외적으로 큰 수준인 마리당 5~7kg이었으며, 일부는 10kg을 기록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8월 18일자



중서부태평양 8월 어획량, 7월 대비 16% 증가

8월 9만 9,913톤...연간 누적 어획량은 여전히 적어

8월 중서부태평양 선망 어획량은 7월 대비 16% 증가한 9만 9,913톤을 기록하였다. 2022년 8월 어획량은 올해 8월보다 24% 적었다.

8월의 어획량 호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의 연간 누적 어획량은 여전히 적은 편이다. 올해 1월부터의 누적 어획량은 71만 3,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나 감소하였다. 이는 가공업체가 사용 가능한 참치 원어가 약 25만톤이나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중서부태평양 어업은 여전히 동부에 집중되어 있다. 8월 키리바시 EEZ 어획량은 전체의 약 47%인 4만 7,000톤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하였다. 키리바시의 6월 어획량은 4만 6,000톤으로, 전체 어획량의 60%를 차지하였다. 선망선단은 공해 조업을 줄였고 그 결과 어획량은 절반 이하로 감소한 9,700톤에 그쳤다.

마이크로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나우루, 마셜제도의 어획량은 도합 4만 2,800톤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7월 어획량인 1만 7,200톤 대비 대폭 증가한 수치이

다.

지난달 나우루협정당사국(PNA) 수역의 조업일수제도(VDS) 사용량은 2,998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공해상 조업과 합치면 조업일수는 약 3,500일이다.

마이크로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나우루, 마셜제도에서 조업 노력이 증가하여 전체의 약 38%를 기록하였다. 이는 조업이 다소 서쪽으로 이동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키리바시 수역 및 공해 어업이 21%만을 차지하였던 2022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차이가 있다.

8월 스쿨조업 가다랑어 어획량은 일일 평균 21톤, 총합 7만 3,500톤을 기록하였다.

대형 눈다랑어 스쿨조업 일일 어획량은 13% 감소한 6.4톤을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전년 8월과 비교하면 4배나 되는 수치이다. 날개다랑어 어획량은 약 2만 2,400톤을 기록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9월 25일자





중서부태평양 8월 전재량, 7월 대비 6% 감소

8월 전재량 5만 4,674톤

FAD 금어기에도 불구하고 중서부태평양 어획량은 8월에 개선되었지만, 나우루협정당사국(PNA) 항구에서 옮겨온 참치의 양은 감소하였다.

8월에 PNA 항구 전재량은 7월 대비 6% 감소한 5만 4,674톤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양은 월간 전재량이 48,000톤에서 50,000톤 정도였던 2021~2022년 8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6월은 수개월간의 낮은 어획량 이후에 선망선단이 가다랑어와 황다랑어를 대량으로 잡았기 때문에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전재량을 보였다.

지난 8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단은 PNA 동부 지

역에서 조업 노력을 집중시켰고, 키리바시 수역에서 많은 양이 어획되었으며 마셜제도와 파푸아뉴기니에서도 어획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태평양 지역 주요 참치항 중 하나인 마주로에서의 전재량은 약 2만 2,000톤(전체의 4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키리바시 항구의 전재량은 총합 1만 5,000톤으로 전월과 거의 동일하였다. 파푸아뉴기니 항구 전재량은 총합 1만 4,000톤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나우루, 솔로몬제도, 투발루 전재는 없었다.

* 출처: Atuna, 2023년 9월 26일자

태평양 도서국, BBNJ 서명

마이크로네시아, 팔라우, 솔로몬 등 포함

현지시각 9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67개국이 'BBNJ'로도 알려진 'UN 공해 조약'에 서명하였다. 이들은 자국 영해만이 아니라 공해상에서도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였다. 태평양 도서국인 마이크로네시아, 팔라우, 솔로몬 제도, 피지, 투발루, 아메리칸사모아 등이 해당 조약에 서명하였다.

지난 3월 합의되었고, 지난 6월 UN이 채택한 이 조약은 2030년까지 육지만이 아니라 해양의 30%를 보호한다는 '30x30'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해당 조약에 서명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해양보호구역(MPA) 확대 추진으로 인하여 자국 참치업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 출처: Atuna, 2023년 9월 21일자



‘22년 EPO 황다랑어 어획량, 15% 증가

과학자 “EPO 황다랑어 크기 감소 조사 필요”

2022년 동부태평양(이하, EPO) 황다랑어 어획량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29만 1,826톤으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FAD에 어획된 황다랑어 어종의 크기는 수년에 걸쳐 감소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어획량 변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 데이터는 8월 IATTC 연례회의에서 보고되었다. 2022년 어획량은 2012년부터 2021년 사이의 10년 평균 선망 어획량보다 약 22% 더 높았다. 황다랑어 대부분은 멕시코 국적 선박이 어획하였다. 멕시코 국적선 어획량은 11만 9,479톤으로 가장 많았다.

Alexandre Aires Da-Silva IATTC 과학 연구 부문 책임자는 "2022년 FAD 황다랑어 어획량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FAD에서 황다랑어의 어획량(중량 기준)이 2021년 수준에 비해 48% 증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EPO에서 FAD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IATTC 회원들 사이에서 주요 논의 사항이다. 작년에 EPO 선단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만 7,699대의 FAD 및 로그 세트를 투입하였다. 회의에서 IATTC 관계자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FAD 증가 추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2022년 EPO의 참치 어업 보고서에 따르면, EPO에는 9개의 선망 어업(부유물 조업 4개, 돌고래 연계

조업 3개, 비연계 조업 2개, 채낚기 조업 1개)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FAD 어획량은 증가했지만, 황다랑어 크기는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 황다랑어 평균 무게는 6.5kg으로 2020년 평균인 10.5kg보다 훨씬 작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다른 해의 평균치인 7.2~7.9kg과 비교해도 훨씬 작은 수준이다.

Da-Silva는 크기가 감소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2022년 황다랑어의 평균 체중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답하였다.

Da-Silva 과학자는 2022년 황다랑어 어획량 증가, 2021~2022년 부유형 어구에서 눈다랑어 어획량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그러한 어구의 수 증가 등 데이터에 나타난 세 가지 주요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Da-Silva 과학자는 이러한 추세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A) 고안된 최근의 눈다랑어 어획량 제한 기준의 시행으로 인해 어업 전략에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 B) 최근의 어획량 변화(예: 최근 황다랑어 어획량 증가)는 2022년 부유형 어구에서 소형 황다랑어가 많이 어획되어 평균 무게가 낮아진 것 C) 환경 조건으로 인한 가용성의 변화 D) 어업 폐사율의 증가.

* 출처: Atuna, 2023년 9월 5일자



日 냉동 눈다랑어 8월 수입가, kg당 735 엔

대만산 738 엔...하락폭 둔화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다랑어류의 8월 수입 실적은 선어, 냉장 제품 수입량 727톤(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 수입액 15억 300만 엔(41% 증가), 냉동 수입량 1만 3,235톤(6% 감소), 수입액 133억 5,000만 엔(16% 감소), 가공품 4,653톤(8% 감소), 39억 6,200만 엔(0% 감소)이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의 kg당 평균 단가는 8월 735 엔(31% 하락)으로, 7월 평균 단가인 kg당 738 엔 대비 거의 변동이 없었다. 수량이 가장 많은 대만산의 평균 단가는 kg당 738 엔(31%

하락)으로, 마찬가지로 7월 평균 단가(kg당 743 엔) 대비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일간수산경제신문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연말 판매 경쟁 이전까지 가격을 반등시키기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여도 물량을 움직이고 양상 재고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가격이 한층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상황을 예의주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10월 5일자

日 도요스시장 눈다랑어 8월 가격, kg당 1,013 엔

냉동고 재고 과잉으로 출고량 늘리는 추세

일본 도쿄 도요스시장에 따르면, 8월 냉동 눈다랑어 대형(40kg 이상)은 초저온 냉동고의 과잉 재고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판매량을 대폭 늘려 1만 1,887톤(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을 기록하였다.

현재 재고 과잉 상태인 냉동 눈다랑어 원어 외에도 가공품 또는 참다랑어 등이 냉동고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손질되지 않은 원어(丸魚,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든 부위가 갖춰진 원어)'의 시장 출고량을 늘리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형 소매점의 판매 가격은 현재의

낮아진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소비는 여전히 둔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8월 대서양산 냉동 눈다랑어의 상장량은 5,198마리(37% 증가)이며, 수량이 가장 많은 서경·태평양산은 6,060마리를 기록하였다.

서경·태평양산 냉동 눈다랑어 대형 중가(中値, 가장 판매량이 많은 판매 가격)는 kg당 1,013 엔(20% 하락)으로, 1,000 엔을 목전에 두고 있다. 눈다랑어 가격이 kg당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21년 6월(kg당 960 엔)이 마지막이었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9월 20일자



日, 8월 냉동참치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냉동 눈다랑어 175톤 수입

〈 2023년 8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날개 다랑 어	한국	-	96	99	217	155	244	73	27
	대만	27	4	281	473	437	21	492	261
	바우루	-	1	131	198	353	-	1	-
	기타	105	42	3	-	31	125	253	447
	소계	133	144	396	888	975	391	818	735
황다 랑어	한국	173	217	262	92	58	505	329	214
	중국	54	338	265	304	177	537	583	513
	대만	1,295	1,668	1,245	1,793	1,865	1,240	655	941
	필리핀	987	245	74	122	121	-	-	-
	인니	26	94	164	67	17	-	-	25
	미국	-	-	-	-	-	-	-	-
	바우루	56	168	400	251	101	127	103	133
	피지	16	12	28	-	18	4	-	-
	카바시	4	2	13	3	-	-	50	25
	마셜제도	180	1	197	-	267	124	-	50
	기타	1,662	692	3,465	1,106	1,975	1,781	1,253	814
	소계	4,453	3,437	11,209	3,738	4,598	4,317	2,973	2,714
눈다 랑어	한국	84	136	126	513	112	559	275	176
	중국	136	373	949	558	479	1,115	977	1,097
	대만	1,717	1,538	2,639	2,852	2,757	2,284	1,410	2,707
	필리핀	-	-	-	-	-	-	-	-
	인니	1	30	8	8	7	-	-	-
	세이셸	562	280	137	364	368	686	298	645
	바우루	41	309	484	613	232	82	62	306
	기타	36	82	40	117	52	151	226	66
	소계	2,578	2,748	4,385	5,026	4,007	4,918	3,247	4,996
남방 참다 랑어	한국	-	132	-	-	-	-	-	-
	대만	6	10	5	-	-	-	-	-
	호주	-	-	-	-	-	20	717	1,561
	소계	-	-	-	-	-	-	-	-

* 출처: 일간수산업경제신문, 2023년 10월 5일자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척수, 13년 만의 최소치

2023년 기준 236척

최근 태평양참치포럼에서 연설한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의 Sangaalofa Clark CEO는 세계 최대 참치 어장인 중서부태평양의 선망선 척수가 지난 10년간 급감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 273척이었던 선망선 척수는 2023년 236척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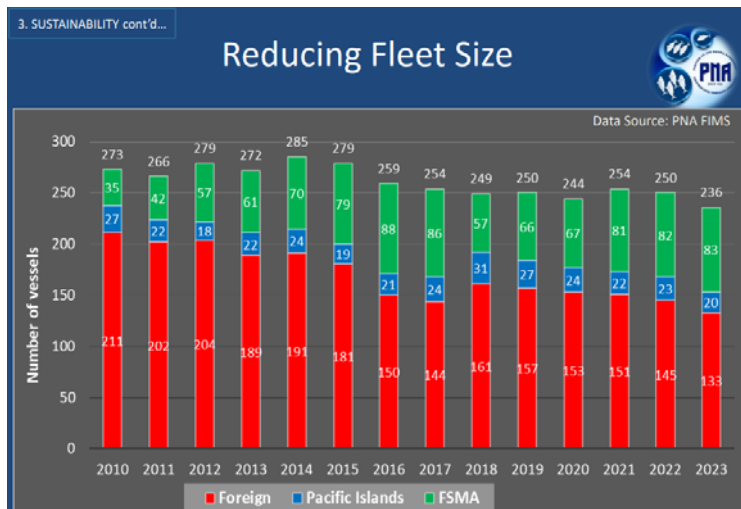
2015년 이후 선망선 척수가 43척이나 감소하였으나, 활동 중인 선박의 총 조업일수는 4만 5,000일~5만일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였다. 이는 남은 선박들의 조업일수가 더 늘어났음을 암시한다. 해당 기간 동안, 중서부태평양 공해의 조업일수 비중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나머지 조업일수는 PNA 국가의

EEZ에서 사용되었다. PNA 수역의 조업일수제도(VDS)는 필리핀, 한국, 대만 선단이 대부분 사용하였다.

선망선 감소 추세에의 원인 중 일부는 높은 VDS 비용 및 일부 선망선단의 공해 어획량 감소 및 채산성 부족이었다. 일부 선망선은 동부태평양에서만 조업하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하였다.

2022년의 선망선 236척은 조업일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PNA 수역 어획량은 140만톤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공해 어획량은 10년 만의 최소치를 기록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9월 27일자



(사진: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척수)

(적색: 외국선 / 청색: 태평양 도서국 / 녹색: FSMA)



세이셸 가다랑어 9월 가격, 톤당 1,650 유로 8월 대비 약 2% 하락

9월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은 톤당 1,650 유로(약 1,766 달러)로, 8월 가격인 톤당 1,685 유로 대비 약 2% 하락하였다. 인도양 항구 양륙 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업체인 Princes와 IOT는 톤당 1,450~1,550 유로 선의 가격에서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연간 어획량은 전년 대비 약 20~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양 선망선단은 올해 황다랑어 쿼터를 전부 소진하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2~3주간 어획량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가다랑어 어체 크기가 작고(약 2~3kg), 품질이 좋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엘니뇨 영향, 지난 수개월

간 지속된 악천후, 일부 어선의 침몰 등의 사태로 인하여 유발되었다.

역사적으로 어획량은 1년간 요동치지만 9~12월까지 회복세를 보이는 편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황다랑어 어획량은 평균 이하이다. 어체 크기는 10~40kg 사이이며, 주 구매자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구매자들의 거래량은 저조하다. 세이셸 황다랑어 가격은 톤당 2,100 유로로, 전월 가격은 2,050 유로 대비 5% 상승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9월 20일자

EU 의회, 새 참다랑어 관리 계획 승인 2018년 대비 어획량 한도 최대 20% 증가

EU 의회가 지중해와 대서양에서 참다랑어 어획 쿼터에 대한 새 관리 규칙에 청신호를 보냈다. 이로써 참다랑어 자원 회복을 위하여 10년 넘게 시행된 엄격한 제한이 종식될 전망이다.

EU는 선망 어업인들이 2018년 한도에 비해 어획량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EU는 향후 어업 계획에 선망어업 뿐만 아니라 영세 장인형 어업 또한 우선순위에 포함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U 의회의 Clara Aguilera 의원은 현재 자원이 회복되었으며, 제한을 유지하면 유럽 선단만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의원은 또한 회원국들이 특히 영세 장인형 어업에 대하여 더 공정한 쿼터 분배를 원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각 조업이 끝날 때 부수 어획물은 총 어획량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권고안은 9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이제 회원국들은 참치 어획량 할당량 설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이 합의는 중서부 태평양참치위원회(ICCAT)에 제출될 예정이다.

* 출처: Atuna, 2023년 9월 14일자



EU, 참치 통조림 수입량 약 26만톤...7% 감소 가격 상승 원인

EU의 올해 1분기 참치 통조림 수입량은 미온적인 수요로 인하여 8만 3,573톤에 그쳤다. 그러나 2분기에는 훨씬 더 많이 수입되어 2023년 상반기 총 수입량은 25만 5,901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다. 이는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상반기 수입량이다. 평균 수입 가격은 대폭 상승한 톤당 5,496유로로, 이는 사상 최고치이다.

EU 시장 최대의 참치 통조림 공급국 지위를 유지한 에콰도르의 수출량은 2022년에 비해 1,200톤이 감소한 4만 1,073톤이며 가격은 톤당 4,978 유로이다.

타이유니온 산하 IOT 가공 공장이 위치한 세이셸이 EU에 수출한 통조림의 양은 12% 증가한 4만 1,703톤이다. 수출 가격은 톤당 6,482 유로로 전체 공급국 중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35유로 증가한 수치이다.

유럽에서 판매되는 타이 유니온의 브랜드에는 황다랑어와 날개다랑어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세이셸의 전체 황다랑어 가격은 보통 2023년

인도 계약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2022년 9월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23년 7월에야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파푸아뉴기니의 EU행 수출량은 1만 1,569톤으로 20% 감소하였고, 가격은 20% 상승한 톤당 4,782 유로를 기록하였다. 파푸아뉴기니의 6개 통조림 업체는 올해 원료 공급 부족으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온 보관 참치 제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작년 대비 2023년 상반기 유럽 가공업체의 EU 내 공급량은 약 2만 3,700톤 감소하였고, 평균 수출 가격은 톤당 6,217 유로였다.

스페인 통조림 업체들의 EU 내 수출량은 12% 감소하였다. 수입 허브인 네덜란드로 반입된 통조림의 양은 36%나 감소한 1만 5,698톤이었다. 이탈리아의 EU 내 수출량은 33% 감소하였다, 이는 프리미엄 황다랑어 제품이 7,775유로라는 매우 비싼 가격으로 판매된 것이 주원인이다.

* 출처: Atuna, 2023년 9월 12일자





美 상온보관 참치 매출 증가 추세

8월 매출 및 매출량 모두 증가

미국의 8월 상온보관 수산물(통조림·파우치 참치 제품 포함) 매출은 1.9% 증가하였고, 매출량 기준으로 2.7% 증가하였다. 그러나 신선 및 냉동 부문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예상 데이터보다 감소하였다.

한편, 지난달 신선 수산물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7.4% 감소한 5억 9,500만 달러(5억 6,600만 유로)를 기록했으며, 이 부문의 물량도 6.6% 포인트 감소하였다. 210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미국의 냉동 수산물 매출량은 8.1% 감소했으며, 매출은 7.7% 감소한 6억 1,900만 달러(5억 7,900만 유로)를 기록하였다.

해당 회사의 대표이자 설립자인 Anne-Marie Roerink는 8월 전체 수산물 판매량이 예상치에 비해 감소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못했지만, 많은 미국인이 한 달 동안 외식을 많이 하였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이미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레스토랑과 바에서 작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다. 집 밖에서의 음식과 주류 가격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해당 카테고리의 매출 급증을 설명할 수 있다. 7월 음식 및 음료 업소의 매출은 911억 달러로, 2022년의 815억 달러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8월 소비자물가지수(이하, CPI)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식품 지수는 7월과 마찬가지로 그달에 0.2% 상승하였다. 가정 내 음식에 대한 CPI는 전월 대비 0.2 % 상승했지만, 집 밖 음식에 대한 지수는 0.3 % 상승하였다. 8월 생선 및 수산물 카테고리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1%로 안정세를 유지했으며, 같은 기간 상온 보관 수산물은 5.3%를 기록하였다.

7월과 8월에 실시한 쇼핑객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격 문제로 인해 미국인들의 식료품 구매 방식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응답자의 31%는 더 저렴한 브랜드로 전환하고 있으며 쿠폰을 더 많이 찾고 있다고 답하였다. 40%는 신선식품이 상하기 전에 소진하는 것을 더 의식하고 있다.

뉴욕 연준에 따르면 2023년 2분기에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 시민의 신용카드 대금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경제학자들은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한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또한 10월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재개할 예정인 시기로, 생필품 가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

* 출처: Atuna, 2023년 9월 20일자



중서부태평양 해수면 온도, 수년간 이상 상태

기준 온도 대비 섭씨 0.26도 상승

중서부태평양 해수면온도(SST)의 지난 수년간 온도 평년 편차 (Temperature Anomaly, 기준으로 삼은 특정 기간 동안의 온도 평균을 의미하는 '기준 온도'와의 온도 차)는 섭씨 0.26도 상승으로 나타났다.

태평양공동체(이하, SPC) 산하의 '해양수산프로그램(Oceanic Fisheries Program)'이 발표한 '생태계와 기후 지표 변화 보고서'는 해수면 온도, 참치 어획량, 참치 어체 길이 등의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보고서는 특정한 결론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각종 지표의 측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였다. 2012년 이후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해수면 온도는 계속 상승하여 평균치 이상을 유지하였고, 2022년의 온도 평년 편차는 섭씨 0.26도 상승으로 나타났다. 적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는 2012년에 평균 이하 수준이었으나, 이후 수년간 이를 훨씬 상회하다가 최근에 온도 평년 편

차 섭씨 0.24도 하락을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인 2012~2022년 동안 가다랑어와 황다랑어 어획량은 증가하였고, 눈다랑어와 날개다랑어 어획량은 감소하였다. 2019년에 가다랑어 어획량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 급감하였고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선망 어획물의 평균 어체 크기는 해당 기간 동안 52cm에서 41cm로 감소한 반면, 연승 어획물의 어체는 2016년 급상승한 이후 평균 약 69cm대를 유지 중이다.

이는 황다랑어와 대조적인 수치로, 황다랑어의 연간 어획량은 2012년 이후 증가세이다. 그러나 연승 어획 황다랑어의 크기(선망 어획 황다랑어는 보고서에 미 등재)는 2020년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한 후 2022년에 117cm로 증가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9월 28일자

中 국영기업, 대서양 연승선 2척 추가

약 52m 규모...날개다랑어 조업

중국 국영기업 Sino-Ocean社가 다렌 라오닝 조 선소로부터 신조 연승선 2척을 인수받았다. 52m 규모의 Jinfeng 2호와 Jinfeng 4호는 대서양에서 날개다랑어를 주 어종으로 조업할 예정이다.

해당 선박의 추진 장치와 어구에는 탄소배출 감축 시스템과 에너지 절약 기능 등이 갖춰져 있다. 장기 항해에 필요한 내구성을 보유하여 더 적은 항차로 조업할 수 있게 되었다.



* 출처: Atuna, 2023년 10월 5일자



EU, 키리바시 참치 자원에 대한 접근성 확대

5년간 1,800만 유로 지불 예정

유럽연합과 키리바시 공화국은 새로운 의정서를 통해 어업 협정을 5년 연장하였다. 이로써 유럽연합 선박은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지역의 참치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날개다랑어 등 주요 상업용 참치 4종의 개체 수는 양호한 상태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해양수산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참다랑어를 어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의정서에 따라 EU와 선주들은 향후 5년 동안 총 1,800만 유로를 지불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키리바

시의 수산업 및 해양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200만 유로가 포함된다.

키리바시는 EU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네 번째 태평양 국가가 되었다.

EU 선단은 키리바시 해역에서 연간 최대 160일까지 조업할 수 있으며, 자원량이 허용하는 경우 추가 허가를 획득할 수 있다.

키리바시와 유럽연합은 2003년부터 어업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어업 협정에 따라 4척의 유럽 선망 어선이 키리바시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다.

* 출처: FishNews, 2023년 10월 5일자

MSC, 인증 참치 어업의 FAD 사용 옹호

NGO의 FAD 어업 조장 비판에 반박

해양관리협의회(이하, MSC)가 프랑스 NGO 블룸(Bloom)의 “MSC가 소매업체와 결탁하여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라는 주장에 반박하였다.

블룸은 최근 ‘참치게이트(TunaGate)’라는 보고서 시리즈의 최신 내용에서 2007년 첫 인증 이후 MSC 인증 참치 어획량이 무려 730배로 증가하였고, 이는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절반에 해당하며, 또한 FAD 어법이 매년 수백만 마리의 미성숙 참치, 상어, 거북 등 취약종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MSC는 이에 대해 보고서가 “오해의 소지가 매우 크고”, 보고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의도 받은 적이 없으며, 상업적 어업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오랫동안

벌여 온 블룸의 주장은 허위 및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MSC는 FAD가 위험성은 있으나 모든 FAD 어업이 환경에 위협적이라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인증을 취득하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우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MSC 인증을 받으려면 어업 방식과 관계없이 조업하는 생태계 내의 모든 종에 대한 부수 어획물 비율을 평가받아야 한다. MSC 측은 종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어업이 MSC 어업 표준에 따라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9월 15일자



Princes 그룹 매각 입찰, 8억 4,500만 달러 추정 실적 개선 후 입찰 경쟁 재점화

상온 보존 참치 브랜드 Princes를 소유한 Princes 그룹이 올해 안에 7억 파운드(약 8억 4,500만 달러)에 매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이전에 거론되었던 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Princes 그룹의 소유주인 일본 미쓰비시그룹의 매각 작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런던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기업 Epiris와 미국 론스타, 원락캐피탈파트너스가 입찰 마감을 앞두고 최종 입찰을 준비 중이라고 식품유통 전문지 The Grocer가 보도하였다.

미쓰비시그룹이 Princes 그룹을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은 지난 1월부터 보도되기 시작하였으나, 지난 6월 최고 입찰가가 그룹의 가치인 6억 파운드에 한참 못 미치는 2억 파운드에 그치면서 매각 프로세스가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는 그룹의 수익성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으나, 최근 수개월간 매출이 개선되면서 다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입찰 경쟁 수준도 치열해진 것으로 보인다.

* 출처: Atuna, 2023년 10월 3일자

PNA 선망 MSC 인증 범위 확장, 공개 지연

2023년 12월까지 시한 연장

세계 최대 참치 어업인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가다랑어, 황다랑어 선망어업은 눈다랑어 및 FAD 어업으로의 해양관리협의회(이하, MSC) 인증 범위 확장을 추진 중이었고, 8월 의견 초안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PNA 사무국 CEO인 Sangaa Clark에 따르면, 현재 의견 초안 보고서가 영국의 적합성평가기관(CAB)인 LRQA社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9월에 공개되어야 하나, Section SE 프로세스 및

MSC 전문가 평가(Peer review) 프로세스 등 PNA 측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CAB는 MSC 측에 인증 만료 기간과 평가 마감 시한을 90일 연장할 것을 요청하였고, MSC에서 승인하여 시한은 2023년 12월 21일로 설정되었다.

* 출처: Atuna, 2023년 8월 25일자



페루, 2023년 상반기 냉동 오징어 수출 호황

상반기 냉동 오징어 수출량 185%, 수출액 175% 증가

페루 생산부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페루의 수산물 수출량은 4%, 수출액은 3% 증가하였다. 이는 냉동 오징어 수출의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에 따른 것이다. 2023년 상반기 냉동 오징어 수출량은 32만 300톤, 수출액 5억 8,970만 달러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85%, 175% 증가하였다.

페루 생산부는 이러한 성과에 몇 가지 요인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주로 주요 국제 시장에서 냉동 오징어 수요가 급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페루 해수부는 “중국, 태국, 한국, 스페인에 대한 냉동 오징어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오징어 기반

제품에 전년 동기 대비 3억 2,170만 달러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이들 수출 시장의 성장률은 상당하였으며,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 성장은 1,148%나 되었다. 태국 수출 성장은 15.7%, 한국 수출 성장은 111.5%, 스페인 수출 성장은 50.5%를 기록하였다.

페루 생산부는 “우리는 냉동 오징어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산업이 국가 경제에 핵심적인 기여자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에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라고 결론지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9월 15일자

중국 어민 러시아 오징어에 관심

자체 어항과 선박 조선업도 소유한 기업

블라디보스토크는 중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데 관심이 있는 기업과 산둥성의 대형 어업 기업 대표 간의 협상을 주최하였다. 우선 그들은 오징어에 관심이 있다.

치산(ChiShan) 그룹 수산 공사와 장하이(JinHai) 그룹의 대표들이 연해주를 방문했다고 지방 정부의 언론 서비스는 피쉬 뉴스에 전하였다.

"우리는 대기업이고 직원이 3천 명 이상, 어선 78척, 자본이 수십억 달러에 자체 어항을 소유하고 있으며 조

선 및 선박 수리에도 종사하고 있다. 우리는 연해주에서 오징어와 명태에 관심이 있다."라고 장하이 그룹의 총책임자 쉬더주(Xu Dezhu)가 말하였다.

연해주 기업가 중 몇몇은 중국 기업의 제안에 관심을 보이며 연락처를 교환하고 더 자세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행사는 연해주 '마이 비즈니스' 센터의 일부로 운영되는 수출 지원 센터에서 주최하였다.

* 출처: FishNews, 2023년 9월 25일자



명태 가격, 톤당 4,000 달러 선으로 하락

中 거쳐 美 반입되는 러시아 제품 증가 영향

지난해 알래스카 명태 가격은 최대 50%까지 하락하면서 시장에 큰 의문을 안겨주었다.

미국 PBO(뼈, 가시 제거) 명태 필렛 블록 가격은 2022년 가격인 톤당 5,000 달러 선에서 크게 하락하였다. 현재는 대체로 톤당 4,000 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다.

미국 생산업체들은 러시아산 제품의 과잉 유입이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이유라고 지목하였다.

베링해 알래스카 명태 선사의 한 임원은 현재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며, 러시아가 중국을 거쳐서 미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명태 제품을 공급 중이라고 지적하였다.

러시아산 제품의 미국 시장 직접 반입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으나, 중국에서 피시핑거 등 다른 제품의 형태로 재가공되어 북미 및 유럽 시장에 반입되는 것은 여전히 허용 중이다.

한 유럽 관계자는 매출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업체들의 재고 과잉이 계속된다는 점을 지목하였다. 해당 관계자는 필렛을 사용하는 기업 대부분은 2024년 초가 되어야 제품이 필요하므로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재고를 채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해당 관계자는 미국과 러시아 생산업체들 모두 계약 미체결 재고가 있으며, 일부는 2022년 B시즌부터 남은 재고이기 때문에, 이들 처지에서는 다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관계자는 또한 판매 가격

책정이 매우 낮다고 들었으나, 소규모 생산자가 매입하는 소량의 거래가 주를 이룬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1일부터 EU에 수입되는 러시아산 제품에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러시아 판매자들을 재고 정리에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 양측의 업계 임원들은 명태 가격 상황이 내년까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알래스카 명태를 매입하는 유럽의 한 무역업자는 현재 낮은 가격으로 인하여 매출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공급과 수요 균형이 점차 맞춰지고 있고, 이는 점점 수요가 안정화된다는 뜻이며, 구매자들은 2024년 초에 더 많은 명태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수산물 인플레이션은 다른 단백질의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웰스 & 파고의 분석가들은 수산물의 낮은 가격대가 올가을 소비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것이며, 이는 올해 연말을 앞두고 판매 호조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한 명태 업계 임원은 2023년 연말을 앞두고 상황이 바뀔 수 있으며, 러시아가 올해 들어, 특히 B시즌 들어 전년도보다 필렛 블록 생산을 줄이고 있다고 말하였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9월 18일자



러, 500만 톤 어획 돌입

어획량 지난해보다 11.5% 증가

9월 19일까지 러시아 기업들은 405만 톤 이상의 수생 생물 자원을 확보하였다. 어업 및 통신 감시 시스템 센터에 따르면 작년 수준을 11.5 % 초과하였다.

극동 수역에서 지난해 대비 생산량을 16% 증가하여 309만 톤 이상의 생선과 해산물을 어획하였다고 러연방 수산청은 밝혔다. 명태는 160만 톤(6만 6,400톤 증가), 청어 27만 8,200톤, 가자미 8만 5,400톤(2,300톤 증가), 대구 9만 4,100톤이 어획되었다.

북부 수역에서는 대구 21만 3,600톤, 대구 5만 9,400톤, 카펠린 2만 3천 톤을 포함하여 35만 3,200톤의 어류를 어획하였다.

서부 수역에서는 어획량이 지난해 대비 9.5% 증

가한 5만 8,100톤을 기록하였다. 유럽 청어 생산량은 3만 2천 톤(2,600톤 증가), 발트해 청어는 1만 9,800톤(2,500톤 증가)을 초과하였다.

볼가-카스피해 수역에서 5만 7,500톤을 어획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5% 더 많은 양이다. 동시에 카스피해 청어 어획량은 2만 4,800톤(8천 톤 증가)에 달하였다.

아조프-흑해 수역에서는 어획량이 2만 9,700톤에 달했으며 그중 8,500톤은 아조프해 멸치였다.

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협약 수역 및 공해에서 러시아 어선은 총 41만 6,800톤을 어획하였으며, 이는 2022년보다 6.3% 높은 수치이다.

* 출처: FishNews, 2023년 9월 20일자

러시아에서 더 많은 생선이 가공

좋은 어획량을 배경으로 수산 제품 생산량 증가

1월부터 7월까지 러시아 국내 수산물 제품 생산량은 약 260만 톤에 달하였다. 이는 작년 수준보다 9% 높은 수치라고 러연방수산청은 밝혔다.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냉동 생선 생산량은 182만 톤, 조리된 생선, 생선 통조림 및 캐비어 37만 2천 톤, 냉동 생선 필렛 14만 4천톤, 갑각류, 연체동물, 냉동 및 조리된 기타 무척추동물 9만 1천 톤, 냉동 연육(민스 포함) 6만 톤에 달하

였다. 식품에 적합하지 않은 수생 생물 자원의 어분과 알갱이 등은 10만톤이 생산되었다.

국내 및 해외 수역에서 좋은 어획량을 배경으로 수산 제품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으며, 주요 물량은 러시아 국내 시장으로 이동한다.

* 출처: FishNews, 2023년 9월 19일자



연해주 어민, 명태 어획 지역 확대

2020년부터 축치해 조업

연초부터 연해주 기업들은 거의 42만 5,000톤의 명태를 어획하였다. 지역 수산청에 따르면 어업은 베링해뿐만 아니라 축치해에서도 수행되었다.

6척의 대형 선박을 포함하여 12척의 선박이 명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베링해의 일일 평균 어획량은 500톤, 축치해에서는 200톤이다.

연초부터 연해주 어민들은 약 42만 5천 톤의 명태

를 잡았는데 이는 작년보다 27만 3천 톤 더 많은 양이다. 좋은 어업 여건으로 인해 쿼터는 거의 80%까지 활용되었다고 지역 수산청은 밝혔다.

참고로, 축치해의 명태 총허용어획량은 2020년에 처음 설정되었으며, 어획할당량은 기업간에 분배되었다.

* 출처: FishNews, 2023년 9월 15일자

러어민 어선에 유리한 대출 요청

지금은 어민 지원에 중요한 시기

제재로 인해 어선 건조가 늦어지고 있다. 제한에 해당하는 비우호적인 국가의 장비가 대체 된 것으로 보이나 수입품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자체 장비를 개발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조선업체들은 농업처럼 유리한 대출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어선 11척(64척 중), 게 트롤 어선 8척(41척 중) 등 총 19척(계획된 105척 중)만이 완공되었다. 러연방수산청에 따르면, 어류 가공 공장 건설을 위한 27개의 투자 프로젝트 중 25개의 공장이 건설되었으며 2개는 아직 건설 중이다. "제재 조치와 코로나19로 인해 선단 현대화 속도가 감소했다."라고 수산청은 인정한다.

이제 각 프로젝트의 상황은 부처 간 개별적으로 논의된다. 러연방수산청은 지원 조치가 취해졌고 선박 건조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말한다.

선주 대표에 따르면 어선 건조 프로젝트의 이행 기한이 2년 연기되어 조선소에 대한 지원이 되었지만, 투자자에게는 추가 부담이 되었다. 선박의 고객은 제재된 장비의 유사 제품이 선택되었으며, 러시아 장비로의 대체를 보장할 수는 없다.

신규 선박 인도가 연기되고 대출 상황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를 위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어선선주협회는 농업에서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우대 대출 수단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계획된 조치는 불충분한 자금 조달과 선박 유형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는다. 모든 국가 지원 조치(우선 임대, 선박 건조 비용의 일부 상환 등)는 중소 톤급 어선만을 대상으로 한다.

* 출처: Rossiskaya Gazeta, 2023년 9월 26일자



러, 극동 명태 TAC 11% 증가 명태 228만 5,000톤, 청어 40만 1,000톤

러시아 농업부는 현지시각으로 9월 12일, 2024년 명태, 대구, 청어 TAC를 발표하였다. 최다 어획 어종인 명태 TAC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228만 5,000톤이다. 청어 TAC는 8% 증가한 40만 1,000톤이다. 명태는 대부분 어장에서 TAC가 증가하였다. 서베링해 TAC는 14% 증가한 70만톤이다. 청어의 북오호츠크해 TAC는 7% 증가한 31만톤이다.

명태와 청어가 늘어난 반면, 대구 TAC는 17% 감소한 14만 5,300톤, 가자미 TAC는 20% 감소한 6만 841톤을 기록하였다.

광어 TAC는 오호츠크해 어장에서 일제히 감소하여, 37% 감소한 4,121톤을 기록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9월 28일자

러, 생선 수출 우호적인 국가로 재편성 수출량은 증가 및 수입량은 줄일 예정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세계 최대 수산 시장국 중 하나이다. 올해 어획량은 5백만 톤을 초과할 수 있다. 동시에 수출은 우호 국가로 재조정된다.

러농업부 장관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는 80개국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반면 작년에는 60개국에, 2021년에는 58개국에 공급하였다. 작년에 생선 수출은 4% 증가하였으며, 정부 예측에 따르면 2023년에는 2022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생선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라고 장관은 설명하였다.

농업부 장관은 수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수산물

수입은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수입이 1/4로 감소했다고 언급하였다. "2023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해외 공급량을 계속 늘리는 동시에 수입을 줄일 것이다."라고 장관은 말하였다.

그는 올해 어획량이 500만 톤(작년 490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지금까지 450만 톤 이상이 어획되었으며 이는 2022년 같은 기간보다 11.5% 더 많은 양이다. 연어 시즌은 성공적이었다. 거의 60만 톤이 어획되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2.5배 많은 양이다. 올해 양식 생산량은 40만 톤을 초과할 것이다(작년 38만 톤).

* 출처: Rossiskaya Gazeta, 2023년 9월 27일자



러, 3년간 명태 소비를 두 배로 늘리기 위해 노력 '극동 명태' 브랜드 캠페인 시작

러시아 명태어업협회(이하, PCA)는 지난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6회 글로벌 수산 포럼의 일환으로 국내 명태 소비를 급격히 늘리기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의 목표는 매우 야심 차다. 3년 안에 국내 명태 소비량을 2022년 현재 18만 3천톤에서 2025년 35만톤으로 약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라고 명태협회장은 말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하나로 러시아 시장에서 "극동 명태" 브랜드 탄생을 지난 5월 발표하였다.

"우리는 시장에서 명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물고기의 고유 특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PCA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생선을 섭취하는 러시아 인구의 60% 중 43%가 명태를 구매한다고 한다.

명태협회장은 "러시아인의 정서적 장벽, 제품 품질 및 취향 선호도 때문에 소비 증가가 방해받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극동 명태"라는 카테고리 브랜드가 만들어졌으며 PCA는 그 도움으로 국가의 주요 상업용 어족 자원에 대한 태도를 바꿀 계획이다.

"극동 명태" 브랜드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명태에 대한 레시피와 유용한 정보가 담긴 같은 이름의

웹 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광고 캠페인이 이미 시작되었다. 또한 비디오 레시피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영화 촬영 계획이 있다.

많은 전문가가 러시아의 생선 소비 감소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명태 부문의 상황은 긍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동안 명태의 국내 소비가 1.5배 증가하였다.

"2010년대 초 러시아 명태 어획량의 10% 미만이 러시아 국내 시장에 공급되었다. 현재는 명태 어획량이 20~25% 증가하면서 그 수치가 20%를 넘어섰다."

PCA의 예측에 따르면 러시아 시장에 대한 명태 제품 공급량은 2023년 말까지 20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태는 러시아의 주요 상업 어종으로 러시아 전체 어획량의 약 35%를 차지한다.

올해 러시아의 전체 어업 구역에서 명태 어업에 허용되는 총어획량은 오호츠크해의 89만 7,000톤을 포함하여 205만 9,000톤으로 설정되어 있다.

9월 25일 현재 러시아의 전체 명태 어획량은 166만 톤으로 1년 전 이맘때보다 4% 증가하였다.

PCA는 지난해 190만 톤이 어획된 데 비해 올해는 약 200만 톤이 어획될 것으로 예상한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10월 4일자



RFC, 자국 명태 공급 증대 위한 계약 명태 약 3천톤 가공업체에 공급하여 연육 생산 예정

러시아 거대 흰살 생선 회사인 러시아 피셔리 컴퍼니(이하, RFC)가 러시아 시장에서 명태 제품 판매 촉진 및 개발을 목표로 수산 가공 회사인 메리디안과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다.

9월 2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6회 글로벌 수산 포럼에서 체결된 이 새로운 계약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약 3천톤의 명태를 메리디안의 가공 시설에 공급하여 게맛살 등 고품질의 수산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태 공급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국가 투자 쿼터 프로그램에 따라 건조된 RFC의 신규 트롤 어선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계약의 주요 목표는 명태 제품을 대중화하고 러시아 수산물 소비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다."라고 RFC의 전략 및 영업 담당 이사(Savely Karpukhin)는 말하였다.

"메리디안의 제품은 러시아 시장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고객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당사는 연육 제품 라인을 계속 개발할 것이며, 대도시의 리듬에 따라 사는 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건강하고 편리하며 저렴한 스낵을 공동으로 홍보하고 대중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메리디안 JSC의 대표이사(Alexey Komlev)는 "RFC와 긴밀하고 유익한 협력의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 상표로 전통적이고 혁신적인 연육 제품 생산을 늘릴 계획이다."

RFC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흰살 생선 생산업체 중 하나이다. 이 회사의 어선은 베링해와 오호츠크해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어획량의 80% 이상이 명태이다.

어업의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은 해양관리협회의(MSC) 인증으로 확인된다.

RFC는 러시아 어선, 국내 조선소 및 육상 가공 인프라의 개조를 목표로 하는 러시아의 국가 투자 쿼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회사는 11척의 대형 공장 트롤 어선을 주문했으며, 이 중 10척은 추가 어획 쿼터에 대한 대가로 건조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4척의 신규 선박이 시운전되어 어장에서 조업 중이다.

메리디안 JSC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수산물 생산업체 중 하나이다. 메리디안의 생산 능력을 통해 연간 3만톤의 완제품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하루에 80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 제품은 러시아의 모든 주요 연방 및 지역 소매 체인에 입점하여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되고 있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10월 2일자



러, 여전히 세계 5대 어업 국가 중 하나

500만 8,000 톤 어획 기대

러시아의 어업은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당히 안정적인 어획량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농업부 장관이 밝혔다.

"러시아 어업 단지는 어떤 제한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플레이어로 남아 있다. 러시아는 수산업 분야에서 상위 5위 안에 드는 국가이다."라고 제6회 국제수산포럼 본회의에서 장관은 말하였다.

"국가와 수산인이 직면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어획량을 계속 제공하고 있으

며, 수산물 및 양식 생산 지표는 현재 성장하고 있다."라고 장관은 덧붙였다.

러시아 어민들이 2023년 9월 19일까지 400만 톤 이상의 수산물을 어획했으며, 이는 2022년 같은 기간보다 11.5% 증가한 수치라고 러연방수산청은 보고한 바 있다.

연방수산청장은 2023년 말까지 러시아의 어획량이 예측 수치를 초과하여 500만 8,000 톤에 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 출처: Tass, 2023년 9월 27일자

러, 생선 소비 촉진 조치 개발 예정

소비자 위한 생선 제품의 가용성 향상 지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학교 급식을 포함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하도록 정부에 지시하였다.

또한 2030년까지 국내산 수산물의 국내 소비를 늘리기 위한 지침을 이행하는 동안 대통령은 최종 소비자를 위한 수산물의 가용성을 높이고 운송 비용을 줄이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수생 생

물 자원의 심층 가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구상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북극항로 이용 확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항만 및 물류 인프라를 개발하고 수산물 소비를 대중화(사회적 광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 출처: Tass, 2023년 10월 5일자



日 9월 상순 쾅치 어획량 1,074톤

전년 동기 대비 2배...어체 다소 대형화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에 따르면, 9월 상순 시점 일본 전국 주요 항구의 신선 쾅치 어획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인 1,074톤이었다. 2019년부터 어획량 부족이 계속되었으나, 올해는 전년도보다 어체 크기가 커지고, 어장이 보다 서쪽에 위치하여 어획량이 다소 증가하였다.

어체의 경우, 8월 시점에는 1마리당 25~27cm, 70~80g 대가 중심으로 전년 8월의 60~80g에 비해 다소 컸다. 올해는 어획물에 따라 29cm, 100~110g 대도 볼 수 있었다. 9월부터는 120~130g 대가 섞였으나 살이 오른 상태는 아직 부족하다고 어업정보서비스센터는 전하였다.

어체에 살이 잘 오르지 않은 원인 중 하나는 높은

수온이다. 8월의 주 어장은 전년 대비 다소 서쪽의 공해에 위치하였고 이는 어획량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수온은 작년과 같은 19~22도로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해당 센터는 전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수온이 저하하는 9월 하순부터 남하하는 어군이 출현하는 추세이다.

주로 양륙 되는 곳은 8, 9월을 통틀어 홋카이도현 하나사키와 앓케시, 그리고 이와테현 오후나토이다. 올해는 러시아 200해리 내에서 조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해당 센터는 남하하는 어군이 출현했을 때, 어느 어군의 살이 잘 올랐을지 주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9월 19일자

日 9월 중순 어획 쾅치 크기·지방 양호한 편

마리당 크기 전년 대비 약 20g 증가

일본 센다이수산은 9월 22일 오전 신선 쾅치 발표회를 센다이시 중앙도매시장에서 개최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크기가 양호하고 어체의 지방 상태도 좋은 편이며, 가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양호한 개체가 안정적으로 입하되기 시작한 시기는 9월 중순부터이다. 홋카이도 네무로 연근해를 주 어장으로 하여 대소형 쾅치 봉수망 어선이 어획한 제품이 센다이수산 및 타 도매시장을 합쳐 일일 4~20톤 정도의 추세로 연일 계속 입하되고 있다. 평균 단가는

전년 동기 수준인 kg당 700~2,000 엔 선이다.

어체의 중심 사이즈는 마리당 약 120g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0g 정도 크고, 지방률도 10%p 높은 20% 전후(센다이수산 조사)로 양호한 편이다.

수퍼마켓·대형소매점이 취급하기 쉬운 1상자(4kg) 35, 36마리들이의 규격은 전년 동기, 1상자당 42~45마가 중심이므로 "대형소매점 주력 판매처에 제안하기 쉽다"라고 센다이수산 측은 설명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9월 25일자



EU 집행위, 강제노동 연루 제품 금지규정 제안

도입 시 강제노동 생산 제품 EU 시장 철수 가능

EU 집행위원회 에이전트 Aldona Sek-Spirydowicz는 최근 스페인 비고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강제 노동 제품을 EU 시장에서 금지하는 입법 이니셔티브에 대해 발표하였다. 수산업 측면에서 이는 EU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초에 제안된 강제 노동 규정은 EU 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 자국 소비를 위해 EU에서 생산되는 제품, 수출 및 수입 제품을 대상으로, 업종에 무관하게 부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수산업과 관련하여 Sek-Spirydowicz는 전 세계 수산업에서 양질의 노동 조건을 증진하기 위해 EU 회원국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공정한 경쟁을 목표로 하는 이 새로운 규정은 EU 생산자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형태의 불공정 경쟁을 피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권장 규정은 또한 강제 노동으로 만든 수산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도구를 구축함으로써 해당 부문의

불법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존의 IUU 규정 1005/2008을 보완한다.

EU 회원국은 이 규정의 조항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각국 당국은 조사 후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EU 시장에서 철수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세관 당국도 EU 국경에서 이러한 품목을 식별하고 중단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는 위험 지표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업과 관할 당국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자는 덧붙였다.

EU는 이미 EU 인신매매 방지 지침과 같은 여러 수단을 시행 중이다. Sek-Spirydowicz는 모든 EU 회원국이 ILO 강제노동 협약 제29호를 비준하였으나 2014년 의정서를 승인한 국가는 19개국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9월 15일자





러시아 트롤 판매 증가세

러시아산 어구 유럽산·한국산 어구 대체

Fishing Service 회사의 부사장인 Dmitry Fedorov는 다수의 자국 신조선에 어업 장비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업체가 되었으며, 이는 트롤이 지속적으로 높은 어획량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장비는 최근에 건조된 트롤 어선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어업을 한 선박에도 설치된다. 이전에는 유럽산이나 한국산 어구를 구매했지만, 이제는 우리 제품을 구매한다. 특히 공급업체를 바꾼 것을 후회하는 고객이 한 명도 없다."라고 부사장은 강조하였다.

"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사는 생산 기계를 구입하고 기술 프로세스에 새로운 장비를 도입

하는 등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또한, 물류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배송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 수준을 높이는 등 고객 불편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대처하였다. 따라서 생산에 필요한 소모품은 이전처럼 1/4분기 분량이 아닌 6개월 분량의 재고로 구매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현재까지 수증음향탐지기에서 세 가지 모델이 추가로 테스트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보인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어업 장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Fishnews, 2023년 9월 18일자

러, 해외 수산물 공급 확대

냉동 생선이 76% 차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약 140만 톤의 러시아 수산물이 해외로 배송되었으며 이는 2022년 수준보다 4% 증가하였다. 금액 기준으로 수출액은 36억 달러(4% 감소)에 달하였다.

수산물 수출의 주요 점유율은 냉동 생선이 76%, 필렛 및 기타 어육(민스 포함) 10%, 수생 생물 자원의 밀가루 및 비식품 펠릿 7%,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5%라고 리연방수산청은 밝혔다.

1월부터 8월까지 냉동 생선 1백만 톤 이상, 기타 어육 필렛(민스 포함) 14만 7,000톤, 밀가루 및 비식품 펠릿 수산물 10만 톤, 수생 무척추동물 7만 2,000톤이 해외로 보내졌다.

8개월 동안의 수산물 수입량은 약 39만 톤으로 작년 수준보다 26% 증가하였다. 주요 점유율은 냉동 생선 44%,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21%, 즉석 또는 통조림 생선 및 캐비어 13%, 즉석 또는 통조림 갑각류 및 연체동물 6%, 필렛 및 기타 어육(민스 포함) 6%, 신선 생선 4%, 건조, 소금에 절인 수산물이 3%를 차지하였다.

수입 수산물은 냉동 생선 171천 톤, 갑각류, 연체류, 수생 무척추동물 8만 3천 톤, 조리 또는 보존 생선 5만 톤, 캐비어, 조리 또는 보존 갑각류 및 연체류 2만 3천 톤을 수입하였다.

* 출처: FishNews, 2023년 9월 25일자



러, 인도 생선 수출 연간 15만 톤으로 늘릴 계획

인도, 잠재적으로 흰살 생선 판매에 좋은 시장

러시아연방은 인도에 대한 생선 수출을 늘리고 3~4년 이내에 연간 15만에서 16만 톤에 도달할 계획이다. 전 러시아 어업 생산자 협회(VARPE)의 회장은 제 17회 민간 조선, 해운, 항만 활동, 해양 및 선박 개발에 관한 국제 전시회 및 컨퍼런스 "Neva-2023"에서 이에 대해 말하였다.

"2023년에는 인도와 라틴 아메리카로의 수출이 대단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흰살 생선에 잠재적으로 좋은 시장이며, 제 추정에 따르면 3~4년 안에 수출량을 약 15만에서 16만톤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는

주로 필렛 시장으로, 같은 기간에 7만에서 7만 5천 톤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협회장은 말하였다.

그는 또한 아프리카에 러시아 수산물에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아프리카 시장은 연간 약 4만~4만 5천 톤이지만 4년 후에는 15~20만 톤에 달할 수 있다. 협회장이 강조한 대로 러시아는 현재 대구(세계 어획량의 34%), 야생 연어(세계 어획량의 약 55%), 명태(세계 어획량의 약 60%) 및 고급 계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출처: Tass, 2023년 9월 20일자

한국으로의 러시아 수산물 수입 절반으로 줄어

수입액은 31% 감소

2023년 8월까지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수산물은 총 19만 8,946톤으로 2022년 같은 기간 37만 8,936톤 대비 47% 감소했으며, 수입액은 6,638만 달러로 전년 동기 9,590만 달러 대비 31% 감소하였다.

러시아로부터의 주요 수입 어종은 여전히 냉동 명태로 8만 8,339톤이 수입되어 전체 수출량의 44%를 차지했으며, 수입액은 9,338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1%에 달하였다.

평균 수입 가격은 kg당 1.06달러로 2022년 같은 기간의 1.09달러보다 소폭 하락하였다.

수입량 2위는 냉동 청어로, 수입량은 1만 8,121톤

으로 전체 수입량의 9.1%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물량이며, 평균 수입 가격은 kg당 0.74달러였다.

3위는 냉동 명란으로 수입량은 12% 증가한 1만 1,785톤으로 전체 물량의 5.9%를 차지하였다. 4위는 냉동 정어리로 전체의 5.7%를 차지했으며, 수입량은 2022년 대비 103% 크게 증가하였다.

냉동 각시가자미는 9,099톤으로 4.57%를 차지하며 5위를 차지하였다.

* 출처: Dalekaya ukraina, 2023년 8월 25일자



페루, 어분 생산량 76% 감소

세계 총 어분 생산량 31% 감소

2023년 7월 전 세계 어분 및 어유 생산량은 52%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페루의 멸치 시즌 취소에 따른 공급 감소로 인한 것이다.

IFFO(해양원료기구)에 따르면 페루의 어분 생산량은 전년 대비 76%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 총 어분 생산량도 전년 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FFO는 아이슬란드, 북대서양,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 어획량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지만, 2023년부터 6월까지 전 세계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 감소한 이유는 페루가 2023년 6월 페루 중북부 지역의 주요 멸치 조업 시즌을 취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페루 생산부(PRODUCE)는 해양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업 시즌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후 양식 사료 가격의 상승은 노르웨이의 아스테볼 씨푸드(Astevoll Seafood)부터 중국의 톨라피아 생산업체에 이르기까지 수산물 회사에 영향을 미쳤다.

IFFO에 따르면 주요 항구 창고의 어분 수입량은 지난 5년간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어유 생산량도 7월에 30% 감소했으며, 칠레만이 유일하게 전년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IFFO는 밝혔다.

* 출처: Fishretail, 2023년 9월 22일자

러, 日 수산물 금수조치 검토

中 금수조치에 '동참'

러시아 식품안전감시기관에 따르면, 러시아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며, 이 문제에 대하여 일본 측이 협의를 요청하였다.

중국은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원전 처리수 방류에 반발하여 지난 8월 24일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적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다.

러시아 식품안전감시기관은 성명에서 “방사능 오염 리스크에 근거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

입 금지 조치에 (러시아가) 동참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표명하였다. 이들은 일본과 협상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식품안전감시기관은 일본 정부에 서한을 보내 협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수출용 수산물의 트리튬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 정보를 16일까지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9월 29일자



파도

유 승 우

파도에게 물었습니다
왜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밤이나 낮이나 하얗게 일어서느냐고,

일어서지 않으면
내 이름이 없습니다.
파도의 대답입니다.





9월 오징어 국내 동향

전월 대비 생산량 64% 감소, 소비자가격은 하락

□ **생산동향**(9월 오징어 생산량, 3,790톤으로 전월 대비 64% 감소)

9월 오징어 생산량은 3,790톤으로 전월보다 63.9% 감소했으며,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도 각각 72.2%, 65.9%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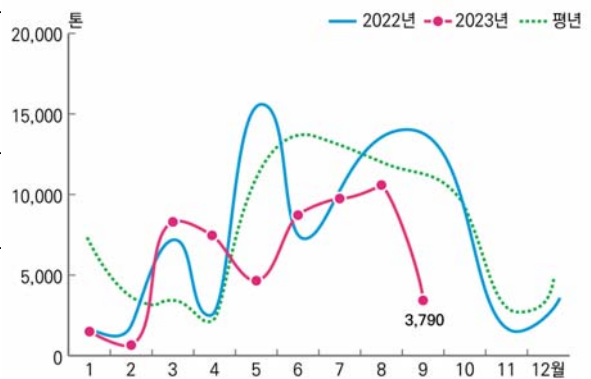
연근해산 생산량은 3,344톤으로 전월 대비 58.9% 감소했으며, 작년 및 평년 대비 부진하였다.

서해에서는 여름철 어기가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세를 보였으며, 동해에서는 생산 부진이 지속되었다.

권역별 위판량은 남해안지역 1,711톤, 서해안지역 1,264톤 등 여전히 남해안과 서해안지역의 비중이 높았으며, 동해안지역은 339톤으로 전월(416톤) 대비 소폭 감소하여 여전히 부진한 어황을 나타내었다.

세부적으로는 서산수협(754톤)의 위판량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여수수협(533톤), 부산공동어시장(567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양산 반입량은 446톤으로 전월 대비 81.1% 감소했으며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 각각 93.3%, 80.5%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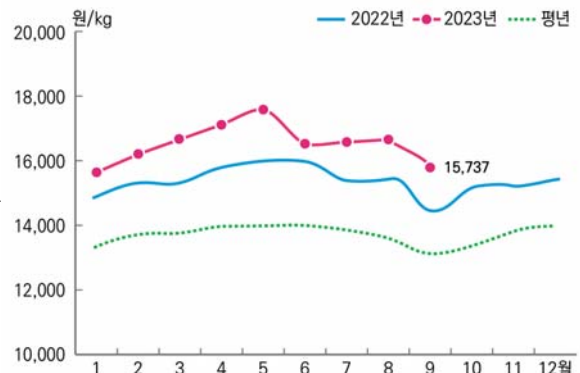


□ **가격동향**(9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정부비축물량 방출로 전월 대비 5% 하락)

9월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전월 대비 10.0% 상승한 kg당 9,580원이었으며,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59.1%, 28.9% 높았다.

오징어(신선냉장) 소비자가격도 공급 감소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18.6% 상승했으며, 작년 및 평년 대비 13.3%, 15.7% 높았다.

반면 냉동품 소비자가격은 정부비축물량 방출 및 대형





소매점 할인행사로 전월 대비 5.4% 하락한 kg당 15,737원이었으나, 작년 및 평년보다는 높았다.

□ 수출입동향(9월 오징어 수출량 전월 대비 67% 감소, 수입량은 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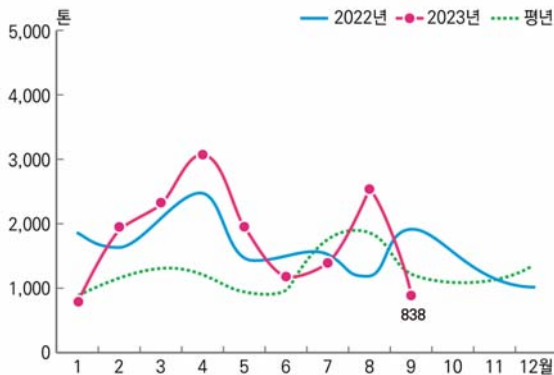
9월 오징어 수출량은 전월 대비 66.8% 감소한 838톤으로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5.7%, 31.8% 적었다. 전월과 마찬가지로 중국(307톤)과 미국(192톤)으로의 수출 비중이 컸으며, 중국으로는 냉동, 미국으로는 기타 제품의 수출 비중이 높았다.

9월 오징어 수입량은 전월 대비 1.7% 증가한 2만 969톤으로 작년보다 5.1% 많았으나 평년보다는 7.3%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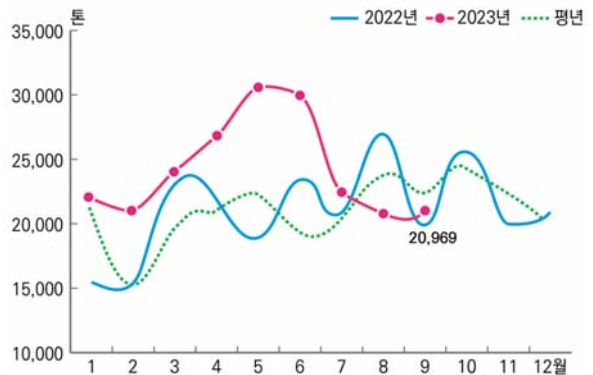
국가별로는 페루산이 1만 971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국산 6,803톤, 칠레산 1,990톤 등의 순이었다.

페루산은 기타, 중국산은 냉동 및 기타, 칠레산은 냉동품 비중이 높았다.

〈 오징어 수출량 추이 〉



〈 오징어 수입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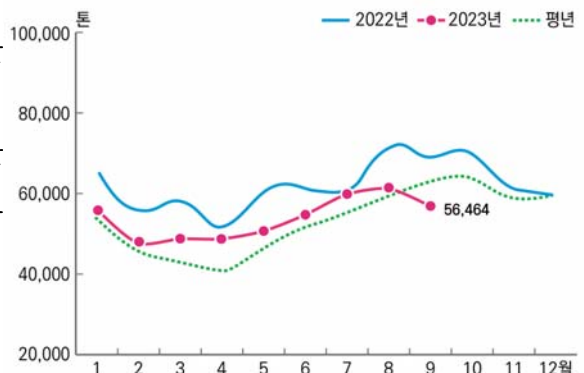


□ 재고동향(9월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7% 줄어든 5만 6,464톤)

9월 말 오징어 재고량은 전월 대비 6.7% 감소한 5만 6,464톤으로 작년 및 평년 대비 적었다.

10월에는 원양산 반입이 적을 것으로 보이며 연근해산 생산 전망도 불투명하여 재고량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KMI 수산물측 10월호





9월 명태 국내 동향

원양명태 반입량 감소, 소비자가격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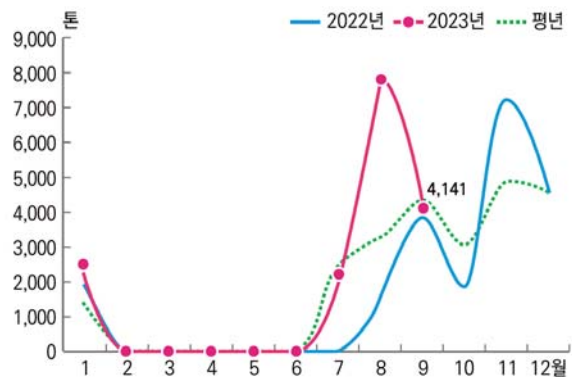
□ 생산동향(9월 원양명태 반입량, 전월 대비 감소한 4,141톤)

9월 원양명태 반입량은 전월 대비 46.7% 감소한 4,141톤이었다.

평년에 비해서는 7.9% 적었으나 작년 동월보다 6.1% 많았다.

2023년 누적 반입량은 1만 6,701톤으로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35.6%, 41.2%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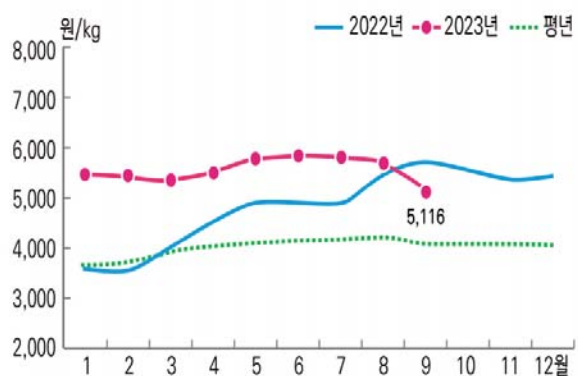
한편, 9월 30일까지 어획된 원양 명태는 2만 1,021톤으로 작년(11,179톤)보다 88.0% 많았으며, 쿼터 소진율은 73.8%였다.



□ 가격동향(9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하락한 kg당 5,116원)

9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kg당 2,357원으로 전월보다 5.0% 하락했으며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8.8% 낮았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5,116원으로 추석을 앞두고 정부비축물량 방출 및 대형소매점 할인행사가 진행되어 전월 대비 10.0% 하락했으며, 작년보다도 10.7% 낮았다.



□ 재고동향(9월 재고량, 전월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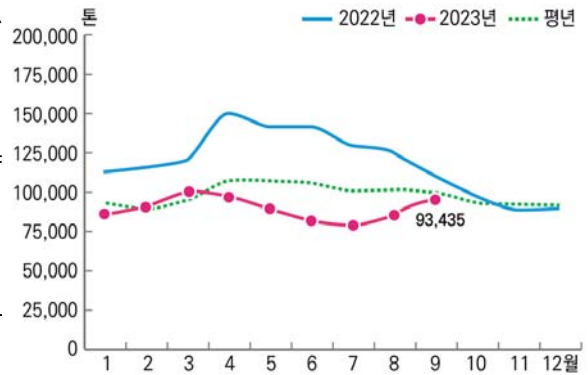
9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9만 3,435톤으로 수입이 늘며 전월(85,427톤) 대비 9.4% 증가하였다.



여전히 작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12.6%, 3.9% 적었으나, 작년 9월부터 對 중국 재수출 물량이 줄어 전년·평년비 감소폭은 적어졌다.

10월에도 원양명태의 반입 및 수입이 원활해 재고량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입동향(9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15% 증가한 4만 2,584톤)



9월 명태 수출량은 5,209톤으로 전월(11,407톤) 대비 54.3% 감소했음. 작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71.4%, 31.0% 적었다.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제품형태별로는 냉동연육(4,349톤), 냉동필렛(215톤), 냉동명태(114톤)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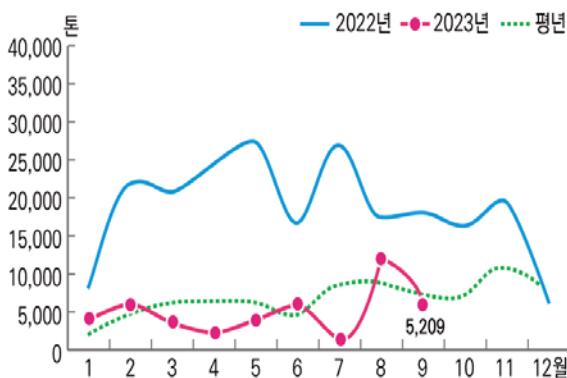
명태 수입량은 4만 2,584톤으로 전월(37,015톤)보다 15.0% 증가하였다.

작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10.7%, 5.0%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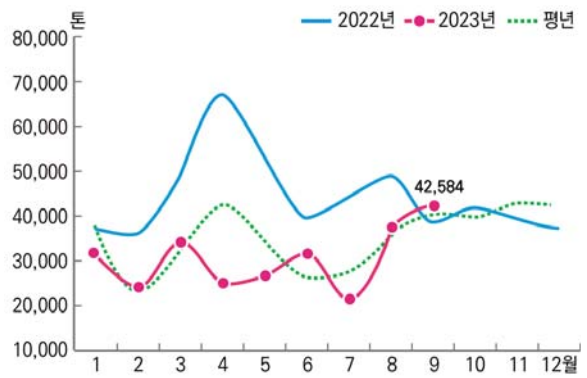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 살펴보면 러시아산 냉동명태(14,096톤), 냉동필렛(13,128톤), 미국산 냉동연육(6,410톤), 러시아산 건조명태(2,488톤) 등의 순이었다.

9월까지 누적 수입량은 27만 7,471톤으로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2.8%, 7.3% 적었다.

〈 명태 수출량 추이 〉



〈 명태 수입량 추이 〉



* 출처: KMI 수산물측 10월호



제30차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총회 개최 부산에서 '24~'26년 남방참다랑어 어획량 결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월 9일(월)부터 12일(목)까지 부산에서 '제30차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총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 CCSBT: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우리나라는 남방참다랑어를 매년 1,000톤 이상(2020~2022년 기준) 어획하고 있기 때문에,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우리 원양 어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국립수산물과학원 출신이자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NPFC) 초대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던 문대연 박사가 의장을 맡아 남방참다랑어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앞으로 3년간

(2024~2026년)의 남방참다랑어 총허용어획량(TAC)과 회원국 할당량(쿼터)이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사무국과 인적 교류 등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제안한 업무협약(MOU) 문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총회 개최사를 통해 “향후 3년간의 남방참다랑어 어획량 및 할당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남방참다랑어 자원의 회복 추세를 축하하고 이에 힘써준 회원국들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 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 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소: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기획홍보부(우편번호: 06775)
- 팩스: 02-589-1630/1631 ○ 메일: kosfa@kosfa.org



세계 유수 수산기업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논의 해수부 장관, SeaBOS(Seafood Business for Ocean Stewardship) 연차총회 참석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1일(수)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SeaBOS(Seafood Business for Ocean Stewardship)와 동원산업(주)에서 주최한 ‘SeaBOS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SeaBOS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해양생태계 개선을 목표로 스웨덴 왕실 후원으로 세계 수산기업과 과학자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2016년 창립되어 노르웨이, 일본, 태국 등 세계 유수 수산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으로는 동원산업(주)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

향과 대응방안 ▲IUU어업근절 ▲항생제 남용 방지 ▲수산업과 과학기술 접목 촉진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도 지속 SeaBos와 함께 가능한 해양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세대에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어업·양식 분야 탄소배출 저감 ▲IUU 어업근절 등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참석 제45차 런던협약 및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 결과

제45차 런던협약 및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 (이하 '당사국총회')가 10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영국 IMO 본부에서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외교부(장관 박진)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동 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당사국총회의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적극 표명하였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각각 1993년과 2009년에 가입했다.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회원국이 폐기물을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논의한다.

* 공식명칭: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CO2 수출입 관련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하여 UN 플라스틱 협약 마련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정부간 회의(INC-5)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18년부터 시행 중인

런던의정서 인력양성 프로그램(LPEM)* 과정을 소개하고 많은 국가의 관심 및 인재 추천을 요청하였다.

* LPEM(London Protocol Engineering Master): 런던의정서 준수를 위해 연안공학, 해양환경 분야 이론, 런던협약·의정서 내용, 국가별 사례를 교육하는 석사과정(2년, KIOST 수행)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하여서는 모든 당사국에게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오염수가 해양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IAEA 대표단은 당사국총회 현장에서 현재 IAEA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과정, 분석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다.

금번 당사국총회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수호 주영국대사관 겸 국제해사기구(IMO) 대표부 해양수산관은 “우리 정부는 해양환경 관련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상무	신현애	589-1602	해외협력본부장
이사	이형균	589-1603	경영지원본부장
비서(대리)	조한솔	589-1601/1621	비서, 출납업무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강성현 부 장	589-1604	총 괄
		공길웅 과 장	589-1605	총무, 자금
		조성환 과 장	589-1606	사무관리, 차량운영
		이인수 사 원	589-1607	총무 지원
	기획홍보부	이형균 이 사	589-1603	총괄(겸직)
		조성주 과 장	589-1608	기획, 홍보
		김민재 주 임	589-1609	원양뉴스, 생산통계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 장	589-1610	총 괄
		김영수 과 장	589-1611	무역제도, 수출통계
		최은혁 주 임	589-1619	노사, 선원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1부	신현애 상 무	589-1602	총괄(겸직)
		최봉준 과 장	589-1613	국제협력
		백상진 주 임	589-1614	참치선망
		정윤경 사 원	589-1615	참치연승
	해외협력2부	박찬준 사 원	589-1620	참치연승
		진호정 부 장	589-1616	총 괄
		최상진 주 임	589-1617	오징어, 기타트롤
		이승환 사 원	589-1618	북양, 쾡치
부산지부	이성재 이 사	051-253-3388	총 괄	
	김현애 과 장		확인업무(수출,반입)	
공인계량소	이동주 팀 장	051-253-3391	차량계량	
	최광준 팀 장		차량계량	

해외수산물협력센터	센터장실	이상묵 센터장	044-868-7360	총 괄
	기획운영팀	-	044-868-7834	행정 총괄, 기획
		김단비 행정관	044-868-7837	인사, 예산, 명예수산관
	해외진출팀	이 은 행정관	044-868-7836	ODA, 해외투자교육
		신승호 행정관	044-868-7838	통계, OFIS

해외수산물협력센터	국제협상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기구
		김수민 전문관	044-868-7363	일반/지역수산기구
		-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기구
		-	044-868-7833	일본/지역수산기구

■ 홈페이지: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02-589-1630/1, (부산지부): 051-253-3392, (해외수산물협력센터): 044-868-7840

명에해양수산물관 연락처

구분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수산물관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수산물관	679-330-7188 ckpfj@naver.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수산물관	62-0343-4742525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홍 수산물관	233-303-200995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수산물관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수산물관	64-3-344-1617 seajho@xtra.co.nz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수산물관	675-321-8137 jc651016@gmail.com
아르헨티나	이상우 수산물관	54-223-495-0712 kargeexport@gmail.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구분	성명	연락처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창원 자문위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자문위원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62호

발행: 2023년 10월 15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울라-9183호/간별: 월간

발행처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건강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홍조림 참치조림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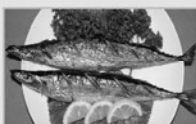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조기류(민어과)

제수용 생선으로 제격



공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납니다.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